



세계기독교 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캄보디아



네팔



콩고



차드



과테말라



캄보디아

“너는 또 여호와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사 62: 3)

WCNF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북미주 및 해외 회원

Check는 WCNF 앞으로 쓰고 회원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북미주 본부로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 WCNF 1946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전 화> (310)324-6620

<이메일> wcnfusa@gmail.com

한국 회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회원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지부
회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 (우)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전 화> (02)764-1227

<팩 스> (02)764-1252

<이메일> wcnfkorea@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 :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1-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우리 : 1005-103-276921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0-594700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3184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CMS(자동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분들은 회보 등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및 사업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1998년 미국 LA에서 원로 기독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사회
와 국가 및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하는 것이 본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1998년 4월 18일 창립, 뉴스레터 1호 발간

1998년 7월 27일 연변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협약서 체결

1999년 5월 20일 연변과기대 건강센터 개설 및 의사, 간호사 파송

2000년 1월 제 1차 정기총회, 미국 LA

2001년 9월 연변 과기대에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 파송

2002년 9월 8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건물 준공

(연건평 2000평, 5층)

2005년 캄보디아 캄땡땡에 누가 건강센터 준공 및 보건교사 파송

2006년 10월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라이프대학에

4년제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파송

2008년 5월 제 1회 한국-캄보디아 간호학술대회 개최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에 9만 달러 상당의

실습기자재 전달

2009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 설립준비, 학술대회 간호분과 주관

2010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 준공

2011년 미주 지부장 평양과기대 방문

2012년 캄보디아 캄땡땡에 유치원 및 예배당 건축지원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 운동(고아원 지원)

2013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대학 설립, 간호학과장 파송

창립 15주년 기념예배 및 영적각성 대부흥회 개최

2015년 1월 한반도 국제통일간호학술대회 및 제 8차 정기총회

개최, 미국 SF

4월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위원회 발족

9월 평양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협약서 체결

2016년 북한의 홍수 피해지역에 이불과 진료소 복구비용 지원

2017년 함경북도에 WCNF 제2보건진료소 착공(공동연대사업)

2018년 1월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미국 LA

2019년 1월 제 10차 총회, 미국 호놀룰루

11월 한국지부 선교대회 개최

2020년 캄보디아 몬노롬에 WCNF 제3보건진료소 착공,

제 51호 e-뉴스레터 발간

2021년 3월 26일 제 11차 WCNF정기총회를 Zoom으로 개최

6월 17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마지막 졸업식

(졸업생 17명)

10월 2일 캄보디아 몬노롬에 WCNF 제3보건진료소 완공

및 봉헌

11월 22일 아프리카 차드 만바에 보건진료소 기공식

contents

- 4 총회장 인사말씀 - 안젤라 서
- 6 한국지부회장 인사말씀 - 성영희
- 7 WCNF소식
- 11 서서평
- 12 선교란 무엇인가? - 한기원 목사
- 13 차드 소식 - 임헌진/ 권홍량 선교사
- 14 영혼 구원을 향한 선교 - 서은성 선교사
- 17 성도들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 성진숙 선교사
- 19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 - 신기조 선교사
- 21 다문화 아동센터 에피소드 - 오은주화 교수
- 23 신입 평생회원
- 24 미주 및 해외지부 후원 내역
- 25 한국지부 후원 내역
- 26 한국지부 회원가입 신청서
- 27 한국지부 CMS 신청서
- 28 미주 및 해외지부 회원가입 신청서
- 29 본부 및 각 지부 현황
- 30 제 12차 WCNF 정기총회 안내

인사 말씀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총회장

안젤라 서

사랑하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가족여러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심각해져가는 기상이변 등 21세기의 인류는 예상치 않았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 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 27)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WCNF)이 1998 년도에 설립된 이후, 이송희 재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 원로 이사, 임원 및 회원들의 기도와 물질과 함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교재단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간호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4명(성진숙, 신기조, 박순복, 황옥남), 아프리카 차드(임현진), 니제르 (서은성), 및 콩고(최관신)에 각 각 1명씩, 네팔 (방영숙), 과테말라(주홍숙, 서복희), 한국에서 다문화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은주화 전연과대 간호대학장님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간호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콩고피그미 족을 위해 최관신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부냐키리 무부야 간호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27명의 북한이탈 간호학생, 간호사로 구성된 징검다리 선교사역이 날로 회원수가 증가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7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징검다리 초청 리트릿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7월 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통일한국시대가 올때 징검다리 회원들이 준비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선교에 큰 역할을 할 이토록 귀한 일꾼들을 섬기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간호 및 교육과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소리없이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선교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가운데 간호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돕기위한 장학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 및 기도로 그들을 돕고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년도 벌써 절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년으로 개최해 오던 정기총회를 제12차 총회에서는 WCNF 간호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계신 캄보디아에서 2023년 1월말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의 큰 잔치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귀한 만남도 갖고 WCNF Clinic 및 사역지도 방문하시고 앞으로 우리 재단의 미래방향 설정에도 참여하시는 뜻 깊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WCNF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선교재단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5)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간호선교사

선교지역	이 름	사 역 내 용	출신간호대학
ASIA - Cambodia	신기조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Clinic	청주간호대학
	성진숙	몬노롬교회 및 진료소 운영	미국
	박순복	헤브론 대학생 복음전파	Virginia 간호대학
	황옥남	Koica 파견	연세대 간호대학
Nepal	방영숙	Father/Mother/Paul Home 청소년 사역	예수간호대학
AFRICA - Chad	임현진, 권홍량	만바공동체 운영	서울대 간호대학
Niger	서은성, 김민선	모슬렘청년사역	국립의료원
Congo	김혜련, 최관신	부냐키리 무부야 간호대학	예수간호대학
Guatemala	주홍숙, 서복희	갈릴리 공동체 진료소 운영, 청소년 어린이 사역	예수간호대학
KOREA	오은주화	부산 다문화 아동센터	미국
CHINA 연변과기대			

인사 말씀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회장

성 영 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활기차게 시작했던 임인년도 벌써 중반을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무기 발사와 끊이지 않는 COVID 19로 인해 혼돈과 불안한 정국으로 치달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고 안정과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2년이상 지속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병원, 학교와 보건소등의 임상 각처에서 헌신적으로 수고 해주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자유롭게 대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우리 재단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회원들의 얼굴을 직접 보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설레임 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지난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정관개정을 통해 교육위원장 및 PUST 부위원장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힘든 근무 여건으로 인하여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는 한국 간호 현장에서 크리스찬 간호 리더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그들이 기쁘게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 성경인물 리더쉽 배우기' 과정을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WCNF의 사업과 활동을 그리고 파견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PUST, NKNR, 홍보 섭외, 재정 위원회별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며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겸손한 자세로 늘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WCNF를 통하여 행하신 많은 일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빕니다.

WCNF 소식

01

국제본부
및 미주

1. 선교지 소식

1) 콩고 부냐끼리 무부야 간호대학

최관신선교사와 한국회장단 및 회원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설립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습시설 및 기자재와 비품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 Cambodia



- 박순복선교사가 사역하시는 헤브론대학 학생 25명이 5월 22일 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다.
- 한국지부 황옥남부회장이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Project manager로 캄보디아에 부임하였는데, 활동하는 3년동안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를 부탁함.
- 몬노롬 WCNF 제 3진료소의 주차장, 전력증강사업 및 건물Side rail작업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성진숙 선교사가 수고하시는 가운데 비신자인 프놈펜 보건국 직원들이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 부탁함.
- 할렐루야! 신기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프놈펜 세종학당으로 선정되어 세종학당과 덕성여대의 지원을 받게 됨
- 본부 이영현 재무위원장이 5월 7-11일 캄보디아 네 곳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격려함

3) Nepal



NAME	AGE	RELIGION	EDUCATION	STATUS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	...	...	...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31. ...	...	...	...	...
32. ...	...	...	...	...
33. ...	...	...	...	...
34. ...	...	...	...	...
35. ...	...	...	...	...
36. ...	...	...	...	...
37. ...	...	...	...	...
38. ...	...	...	...	...
39. ...	...	...	...	...
40. ...	...	...	...	...
41. ...	...	...	...	...
42. ...	...	...	...	...
43. ...	...	...	...	...
44. ...	...	...	...	...
45. ...	...	...	...	...
46. ...	...	...	...	...
47. ...	...	...	...	...
48. ...	...	...	...	...
49. ...	...	...	...	...
50. ...	...	...	...	...
51. ...	...	...	...	...
52. ...	...	...	...	...
53. ...	...	...	...	...
54. ...	...	...	...	...
55. ...	...	...	...	...
56. ...	...	...	...	...
57. ...	...	...	...	...
58. ...	...	...	...	...
59. ...	...	...	...	...
60. ...	...	...	...	...
61. ...	...	...	...	...
62. ...	...	...	...	...
63. ...	...	...	...	...
64. ...	...	...	...	...
65. ...	...	...	...	...
66. ...	...	...	...	...
67. ...	...	...	...	...
68. ...	...	...	...	...
69. ...	...	...	...	...
70. ...	...	...	...	...
71. ...	...	...	...	...
72. ...	...	...	...	...
73. ...	...	...	...	...
74. ...	...	...	...	...
75. ...	...	...	...	...
76. ...	...	...	...	...
77. ...	...	...	...	...
78. ...	...	...	...	...
79. ...	...	...	...	...
80. ...	...	...	...	...
81. ...	...	...	...	...
82. ...	...	...	...	...
83. ...	...	...	...	...
84. ...	...	...	...	...
85. ...	...	...	...	...
86. ...	...	...	...	...
87. ...	...	...	...	...
88. ...	...	...	...	...
89. ...	...	...	...	...
90. ...	...	...	...	...
91. ...	...	...	...	...
92. ...	...	...	...	...
93. ...	...	...	...	...
94. ...	...	...	...	...
95. ...	...	...	...	...
96. ...	...	...	...	...
97. ...	...	...	...	...
98. ...	...	...	...	...
99. ...	...	...	...	...
100. ...	...	...	...	...

- 우리 선교재단이 후원하는 नेपाल의 방영숙 선교사(오른쪽 첫번째)의 여성 사역 공동체인 꼬필라흙 (뜻: 맑은 꽃 봉오리)에서 생활하는 자매인 투사마야(왼쪽에서 첫번째)가 국립의과대학 합격생 17,467명중 20등으로 합격했는데, 앞으로 75% 힌두교 국가에서 최초의 기독교여의사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함.

4) Chad

- 초기 간암 진단으로 시술을 받은 권홍량 선교사님이 속히 쾌차하고, 임헌진 선교사님과 두분이 영육간에 재충전을 받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월 21일 한국에서 권홍량 선교사님을 모시고, 아프리카 차드 제4진료소 설립에 관해 논의함 (참석: 안젤라 서 총회장, 한국지부 성영희 회장, 이은숙 재정위원장, 서명룡 감사)



2. 국제 회의

1) 2021년 11/ 4, 2022년 2/ 2, 5/ 5일 3개월마다 호주, 한국, 미국회장단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WCNF 발전을 위해 회보발간, Web Site Upgrade, Congo 간호대학설립 협조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 3월 21일 안젤라서 총회장과 성영희 한국지부회장 및 이은숙 재정위원장이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글로 벌생명나눔(GLS)을 방문하여, 김정남 대표를 만나



캄보디아 몬노롬 WCNF 제3진료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비품 지원을 위한 선적비를 본부 500만원, 한국지부 200만원 (총 \$5,800)을 지불했으며 앞으로의 비용은 본부에서 전액 감당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두 단체의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하였다.

3) 2022년 6월 16일 국제회의에서 소향숙 교수를 평양과기대 설립추진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3. 제 12차 정기총회 겸 선교지 Vision Trip을 2023년 1월 27일 (금) - 29 (일) 캄보디아에서 개최하기로 국제회장단에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해 호주, 한국, 미국 3개국 TF team이 만들어졌다. 제 12차 총회주제는 이사야 62: 4로부터 “선교,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하였다.

4. 장학위원회

본부 장학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간호대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박혜숙 장학금) 1인당 1000불씩 10명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미주한국일보 (5월 17일) 및 중앙일보 (5월 20일)에 광고하였다. 장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물질적인 후원 및 기도로 그들을 도와 차세대육성에도 본 재단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5. 본 재단 부회장으로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초대학장으로 부임하여 간호대학에 헌신하셨던 이경식 박사님의 90회 생신을 맞이하여 회장단이 방문하여 축하드렸다.

6. 지회장 임명

Indiana주 정귀남교수, San Francisco 김혜련선생님, Hawaii 서지자선생님께서 지회장직을 기꺼이 맡아주시기로 수락하심에 감사 드리며, Canada Vancouver최영자 지회장님께도 계속적으로 헌신해 주시기로 함에 감사드립니다.

7. Online 교육 훈련

선교지 Online 교육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North Carolina 대학교 최지예교수 주관하에 교수지원자 4명이 5차례에 걸쳐 Power Point교재작성 작업 및 Recording에 관해 1차로 교육받았다.

미개발지역의 미래 교육선교사역준비를 위해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Tele-education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wcnfusa@gmail.com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8. 6. 25 전쟁 72주년을 기념하여 U. N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을 초청하여 6월 18일 Laguna Woods 본 재단 박혜숙 봉사부장덕에서 점심을 대접하였다. 작년에 모두 5분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점심대접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였다.



9. 탈북간호사모임인 징검다리모임 회원들과의 Retreat은 비자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 7월로 연기되었는데 시애틀에서 열릴 성령의 샘 Retreat에 참가,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징검다리 회장단(김옥심회장)의 결속을 위해서 본부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 카톡방에 등록된 숫자는 23명으로 6월 2일 김명애 교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제목의 귀한 말씀이 있었으며 2개월에 한번씩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강사를 초청하여 줌 미팅을 하고 있다.



02

한국지부

1. 한국지부 총회

2월 12일(토) 오전 10시에 회원 41명이 참석하여 삼성서울병원의 김정숙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여 본부의 안젤라서 총회장이 사랑과 격려로 축사를 해주었으며, 12시 30분까지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였고,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병숙위원장과 소향숙 PUST 간호대 설립추진부위원장, 신임 이사 및 지회장을 선임하였다.



2. 회장단 회의

1) 1.7(금) - 정기총회 준비

-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사역 소개 및 무부야 칼리지 간호대 건립 소개

2) 3.5(토) - 제3진료소 의료기기 지원 건

- 상반기 일정 검토

3) 4.15(금) - 홈페이지 구축안, 도메인, 한국지부 영어이름

- 소식지 변경안 논의

3. 2022년 선교위원회가 주관하여 임원중심의 기도회를 3월 12일 이사회에 이어서 시행했다.

4. 2022년도 리더쉽 세미나 실시

3월 24일(목) 8PM "성경속의 리더쉽 배우기"를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 30분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지도자 14명과 교육위원 6명을대상으로 강의와 리더쉽 적용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현세현 목사, 성영희 회장, 이병숙 위원장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으며 4월 21일 14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첫 수료식을 가졌다.



5. 황옥남 부회장이 한국국제협력단 Project Manager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환송기도 모임을 가졌다.

6. 신기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1월 24일 한국지부를 방문, 서울아산병원에서 성영희 회장과 최정숙 선교위원장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서서평 徐舒平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 여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열 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셰핑 (Elisabeth Johanna Shepping, 한국명; 서서평 徐舒平; 1880~1934)의 기록입니다.

서서평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간호선교사'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땔 수 없었던 그녀는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여러 선교사와 달리 조선말을 익혀 '서서평'이라 이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혈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 그러나 서서평은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걸인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 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한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달리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 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서서평이 광주에 한국최초의 신학교인 이일학교(禮一學敎; 1961년 전주로 이전하고 한일장신 대학교 개명)와 조선 간호부회(대한 간호협회 전신)를 세운 것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고된 생활에 찌든 딸을 보고 "물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하며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서서평이 22년간의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도중 언제나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고 베풀며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거적떼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린 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천여명은 통곡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ππ !!!"

그로부터 80여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이 묻힌 광주광역시 양림동 뒷동산에는 그의 참사랑과 헌신을 추억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대 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e)"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애국 투사의 헌신과 기도로 건국하였고 발전한 참 소중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번영과 행복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글: 한기원 목사

인사를 드립니다. WCNF의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기원입니다.

WCNF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칭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은 글을 나눕니다.

1.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다.

신학자 칼 발트 목사는 “Missio Dei”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란 뜻입니다. 선교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 시작, 실천, 결과를 가져오시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우리 조상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것입니다.

2. 선교는 우리(하나님의 자녀)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지도 모르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손에 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실천하는 손과 발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

3.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점령하므로 자신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므로 사탄의 권세를 우리를 통해 쳐부십니다. 자신의 비전, 계획, 야심, 욕망, 신념 등은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서로 반목하며 경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4. 선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우리가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언제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자를 찾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회개할 것 없는 하늘의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WCNF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므로 하나님께서 건강, 능력, 지혜, 기회, 사람, 영광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차드 소식



1. “순교, 그 선교의 현장”

“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2021년 12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 차드의 ‘마지야’ 라는 이슬람 마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온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넘어진 한 소년을 돌본 후 일어나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제임스 정 전도사님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잠깐 정신을 차리며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임스 정 전도사님은 53세의 나이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고귀한 순교의 현장은, 어린이 복음 전도와 영어 class를 통한 청장년 전도를 목표로, 제임스 전도사님을 팀장으로 많은 준비와 기도로 단합한 5 개 나라의 국적을 가진 7명의 단기선교 팀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하여 12월 26일 늦은 밤 차드에 도착한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다음날 아침부터 이슬람 마을의 어린이들과 청장



년들을 대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꽃같은 열정으로 5일간의 사역을 마친**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날 31일 아침, 경건의 시간(QT) 을 인도하던 제임스 전도사님은 요한복음 21장 15-19 절을 묵상하던 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구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펄펄 쏟아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시간이었고, 베드로의 예언된 죽음을 통하여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직감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린이 학원과 교회를 섬기는 제임스 전도사님은, 일 년 중 유일하게 쉬는 일주간 (12월24일-1월1일)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차드를 향하여 달려와서 그의 온몸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척박한 차드 땅에 뿌려진 그의 생명은 **차드 선교의 씨앗이 되어 한층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제임스를 심장으로 떠나보내고 이 땅에 남은 우리와 모든 선교 동역자들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함께 참여했던 몇몇의 팀원들은 차드를 향한 소명으로 결단하여, 제임스 전도사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차드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저희 부부와 함께 복음을 향하여 달려 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며칠 전, 저는 소화기 내과 주치 의사로부터 장기간은 안 되지만 **차드 선교지를 조심스럽게 다녀올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벼농사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분과 아프리카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과 함께 저희 부부는 차드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에 간암이 발견되어 제거됐지만 여전히 재발의 위험이 있어 3개월마다 검진하라는 의사의 소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기에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차드 현장... 지난번 선교 소식에서 말바 공동체에서 두 번째 벼 농사를 시도하였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이를 **추수를 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말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뿐 아니라 침례 후보자도** 나오는 등, 점차 **공동체의 기초**가 잘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6-7 월 기도 제목입니다.

1. 차드

- 1).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잘 정리되어 차드의 국민들이 안정을 찾고,
- 2). 차드의 복음화를 향한 선교사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 3). 제임 정 전도사의 순교를 함께 아파하며, 기도와 물질로 동참한 동역자들의 헌신이 차드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2. 사역

- 1). 저희 부부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는데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차드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2). 말바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잘 정착되어 공동체의 성경적 기반이 튼튼해지고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가도록,
- 3). WCNF 보건 진료소와 치과 건물의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 4). 한국에서 입국하는 농업 팀의 선진 농업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6월에 사랑의 빛진 자 된

권홍량, 임헌진 드림

tchadmissionpartner@gmail.com

영혼 구원을 향한 선교



글: 서은성 선교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니제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나라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일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 더위와 정전과 단수마저 종종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인내의 열매를 주 앞에서 맺어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은 라마단이라는 무슬림 금식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고 보내다가 해가 지면 낮 동안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집단 결속력과 종교적 스피릿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이다.

라마단을 살아가는 선교사, 선교사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원리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다. 어제와 그리스도를 사랑했듯이 오늘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하고 어제 그 평범한 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듯이 오늘 사람들이 그들의 절기로 더 강박해 진 날에도 그리하는 것이다. 매일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영광스러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최악이 더 깊어졌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흉악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내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최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몇 천년 후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실 때에도 헤롯이 유아들을 버젓이 학살하였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무자비와 음란이 가득했다. 스마트폰을 쥐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도 여전하다. 수많은 성범죄를 보고 있고 가정의 개념마저 바꾸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잔인하고 가혹한 범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한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였기에 나의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았을 지라도 비록 어떤 날들은 나의 사역이 아무 효과가 없어 보였을 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날들은 언제나 가치가 있으며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회심해야 하고 그 회심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가치관에 맞서는 일까지 불가피하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가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선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받고 성장하였으니 그 물질이 가난한 나라에게로 흘러가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선교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직시하는 것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 신약 시대에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보면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능통하여 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였으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회심시켜 주시고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 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다. 복음이란 삶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육신의 필요가 있어 그것을 채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극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로 수 없는 육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상급임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셔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 주시는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그러함으로 온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선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가?

첫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간단한 진리가 오늘날 왜 이리도 왜곡되어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 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물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배고픔이 해결됨을 보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그렇게 악이 물러가고 병이 없으며 배고픔이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궁극점에 이른 영광의 궁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오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긴장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삶은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삶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뜬구름 같은 세계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섬기는 삶이다. 섬김의 삶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섬김의 원리이다. 섬김의 중요한 원리는 삶을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부분의 섬김에는 특히 선교지에서의 섬김에는 내가 이렇게 당신보다 우수한 문화와 재정적 능력의 상태의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한 마음에서 섬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뽐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의 사회적 성공이 들어 있고 세상의 재화들과 안정적 삶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은 다섯명의 남편을 거친 삶의 곤고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 여인의 삶에 육적인 필요나 관계의 정상화 또는 심리적 지지를 주려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마저도 목이 마른 한 사람이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것은 나중에 생명의 샘 되신 자신을 소개하시기 위한 대화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마시는 물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자신을 보여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대화의 첫 시작은 더운 중동 지역에서 한 낮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이라는 자리에서 삶을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에서 아쉽게도 선교사들은 성급하여 ‘당신들은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당장 우물 몇 개는 파줄 수 있습니다’로 섬김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국에는 사람들이 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어쩌면 그 운명이 끝나버릴 지 모르는 우물에 목매어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설사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을 주신 예수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우물 파는 사역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섬김과 선교의 긴밀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임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와 같은 원리이어야 한다.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로 섬겨주어도 거기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애통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음은 맹목적인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섬기는 자만이 진정 성경적인 섬김을 하는 삶이고 그것이 선교적 섬김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헌신이 기억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하려는 진리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이다.



성도들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글: 성진숙 선교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 20)

매일 시멘트의 뿌연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건축 현장에서 일군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호호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달력을 보니 벌써 4월도 마지막 길에 다가와 있음을 보면서 유수와 같은 세월을 다시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70이 넘은 내가 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WCNF를 통하여 많은 존경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두 선배님은 나의 멘토이시고 나의 선교생활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경식 박사님 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송희 회장님 이십니다.

사실 이송희 회장님은 내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70세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므로 내가 이송희 회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도 이송희 회장님처럼 70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나이 70이 되어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곳 몬로룸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WCNF를 통하여 이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클리닉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클리닉을 통로로 이 지역 복음화에 큰 열매를 맺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9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건축 상황을 돌아보니 그 어느 한 부분에도 주님의 손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전기 시설이 열악하여 세 차례를 거쳐서 올 3월엔 꽤나 비싼 거금을 지불하고 전기 회사로부터 최고의 “100

Ampare X3” 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리닉에 웬만한 의료 기구들을 다 들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대지의 오래 된 고목 나무들을 모두 잘라 없애는 작업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건물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주차장이나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겨우 500여톤의 흙으로 메우고 다지는 작업이 끝난 후 대나무 엮은 것을 깔고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로 건물 둘레에 안전을 위한 Side Rails를 세우고, 화단을 만드는 작업과 주차장과 그리고 남은 넓은 마당을 콘크리트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 값이 무척 올랐고 다른 모든 재료 값이 작년보다 훨씬 올라서 예산을 많이 초과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름답게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 온 GLS 와의 협의가 WCNF 한국 지부의 성영희 회장님과 이은숙 부회장님과 그리고 안젤라 서 WCNF 총회장님께서 GLS 사무실에 직접 찾아 가서 김정남 대표님과 만나심으로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클리닉을 도와 줄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는 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의롭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4월 28일엔 캄보디아의 상원 의회 병원 책임 직원들과 GLS 캄보디아 지부장 일행이 프놈펜에서 이곳 몬로룸 WCNF 클리닉까지 직접 오셔서 미팅을 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상원 의회 직원들은 클리닉 건물이 크고 잘 지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요, 성도님들의 안에 사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요, 성도님들의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엔젤라 회장님을 아주 적합한 때에 한국에 나오시게 하셔서 GLS와의 협의에 결정적인 합의를 보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역사임을 간증하는 바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고 사무엘 상 2장 30절에 말씀 하셨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8절에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철칙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움켜 쥐고 세상과 타협해 왔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 놓을 수 있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선 그 곳이 바로 나의 땅 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몬노롬 WCNF 클리닉이 지금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이 클리닉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신 주님의 지체가 되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열매가 머지않아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GLS에 요구한 선적 리스트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2} 캄보디아 상원 의회 책임자들로부터 클리닉의 모든 행정적/ 법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 3} 몬노롬 WCNF 클리닉과 비전 센터의 마무리 건축 작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 4}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한 클리닉과 비전센터 STAFF 들을 보내 주시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



글: 신기조 선교사

3월 20일 주일, 예배시간에 말씀을 들은 후 학생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과 돌아가면서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기도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싼띠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싼띠는 수의대 3학년 남학생이다. 요즘 노트북이 말썽을 부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인턴으로 봉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새로 사겠다고 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하나님,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잘 안되니 하나님께서 새로 사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었다.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기로 하였다. 싼띠의 기도제목을 들은 후에 어떻게 싼띠에게 새로운 노트북을 준비해 주어야 하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함께 사역하는 임평강선교사는 노트북에 대해서 잘 알기에 싼띠의 노트북을 점검해 보라고 하였더니, 노트북체크 후에 평강선교사가 하는 말이 “싼띠! 노트북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을 후 내 마음은 더 급해졌다.

공부하는 학생이기에 강의를 노트북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노트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다. 급하게 노트북이 필요한데 한국에 연락해서 노트북을 구해서 보내 달라고 하기에, 후원을 받아서 준비해주기에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기도하며 일단은 평강선교사에게 중고로 사용할 만한 것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평강선교사로부터 \$300정도면 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일단 사는



것으로 하였다. 살 때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은 모두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렇게 노트북이 준비되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기에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 실까 생각하였다.

마침 그때 한국에서 보건사역으로 오신 교수님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싼띠 이야기를 하였다.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돈이 있다 하시며 교수님께서 노트북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달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급하게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부터 그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빠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주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최선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장 좋은 여건으로 준비해주신 노트북은 4월 1일, 싼띠에게 전달이 되었다. 노트북을 받는 싼띠의 모습이 자못 놀라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다문화 아동센터 에피소드

글: 오 은주화 교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WCNF 가족 여러분께,

살롱!! 축복합니다. 그간 평안 하셨는지요?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오미크론)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치솟는 확진자의 숫자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흥흥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요, 구원자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 몇 차례 코로나 확진 사례로 제가 섬기고 있는 다문화 아동 센터가 문을 닫았으나 이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센터를 닫지 않고 교육 및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 주일학교도 현재 8주 연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안 센터에 왔던 아이들이 주말에는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현재 4-8명 정도 적은 수가 참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비록 그들 자신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그 동안 센터에서 경험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을 주일학교도 참여시키고 싶도록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 하게 하실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심기어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거룩한 씨가 되어 그들이 어디서 살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며칠 전 센터에서 카작스탄에서 온 디아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1:1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돌발 사고가 났습니다. 유난히 자기 주장과 독립심이 강한 여아입니다. 틀린 답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제 손을 밀치고 때립니다. 그리고는 억지와 투정을 부리며 '선생님 때문에 틀렸다'며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잠시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어 속상해서 울고 싶구나.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라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디아나는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고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롬 1:24절에 "...내버려 두사..." 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내 버려 두라" 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과 침묵의 시간이 싫었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디아나를 만져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던 디아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보고 '선생님 (공부방에서) 나가요' 하며 책상 밑으로 들어가버리며 연필 통에 있는 연필들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기도하는데 상태는 더 심각해 지고 있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아를 키워 본적도 없고 우리 애들(남자) 어릴 적 일들이 너무 오래된 일들이라 생각도 나지 않고 ... 다시 저는 기도에 몰두 합니다. 혹시 디아나가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살피면서... 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도 '내 버려 두라' 였습니다. 길고도 길게 느껴졌던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디아나는 혼자서 짜증난 소리로 궁시령 궁시령 댁니다. 저는 '선생님은 디아나가 제자리에 와서 앉을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다시 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는 마음의 소리로 회개가 나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했다가 일이 안되면 짜증내고 상황 탓하고 하나님께 한숨 쉬고 울었다가 혼자서 군시령 하다가 책상 밑으로 숨듯 하나님 앞에서 잠수 탕다가 연필을 내동댕이 치듯 제 분노에 못 이겨 이런 일 저런 일 벌려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회개하며 디아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책상 밑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살짝 눈을 떠 아래를 보니 디아나가 수학 문제집에 원가를 긁적거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뭔가 변화가 일어난 듯 합니다. 몇 분 지난 후 내 책상위로 문제집이 올라오며 디아나가 하는 말, '선생님,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하며 내 옆 의자에 앉습니다. 저는 디아나를 가볍게 안아주고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약속대로 풀기로 한 페이지 보다 반 페이지나 더 풀었습니다. 디아나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어려운 문제를 저와 함께 풀었습니다.

곧 이어 간식시간 입니다. 어지럽게 내동댕이 쳐진 연필이 땅에 가득합니다. 정리 정돈 후 간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더니 싫다고 다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 갑니다. 10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아--- 오늘은 기도를 많이 시키시네요.' 책상 밑에서 연필을 왼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디아나가 어질어진 연필들을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바꿔 먹었나 봅니다.

그 순간 탕자의 둘째 아들이 돌아 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탕자가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쏜살같이 뛰어가 그 아들을 감싸 안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방향을 바꿨을 때 기뻐하시며 귀한 길을

도와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며 '디아나가 정리하기로 했으니 선생님이 도와 줘야지' 하면서 디아나가 책상위로 올려 놓는 연필들을 저는 연필 통에 꽂아 주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디아나가 너무 귀엽고 예쁘게 보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의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 제가 이동형 대형 TV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는데 갑자기 디아나가 쫓아와 아무 말없이 자기 보다 3배나 더 높은 TV를 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디아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디아나의 도움은 큰 도움이 안되었고 오히려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으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킁킁거리며 선생님을 돕겠다는 귀여운 헌신?의 마음이 감동이었고 흐뭇했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못된 나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시고 행동까지도 아닌 약간의 회개의 마음만 품어도 얼른 와 주셔서 그 회개 귀환의 길을 함께 동행 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의 헌신의 날개 짓이라도 하고 싶어 지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여울까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일어 났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축복입니다. 부족한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쟁과 역병으로 흉흉한 세상에서도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WCNF 온 가족들이 늘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축복드리며...

2022년 4월
사랑에 빛진자, 오 은주화 (Grace Park) 올립니다.

신입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본 재단의 교육, 봉사, 선교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회원으로서
일백만 원 이상이나, 미화 일천 불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입니다.

미주 및 해외 신입 평생회원 (2022년 1월 ~ 2022년 6월)

회원No.	이름	소속	회원No.	이름	소속
573	김혜련	예수간호대학 동문	574	김규숙	예수간호대학 동문
575	석소정	Umbrella Hospice Administrator			



573 김혜련
예수간호대학 동문



574 김규숙
예수간호대학 동문



575 석소정
Umbrella Hospice Administrator

한국지부 신입 평생회원 (상반기)

회원No.	이름	소속	회원No.	이름	소속
614	박수경	삼성서울병원	615	박희옥	계명대학 간호대
616	정진아	서울아산병원			



615 박희옥
계명대학 간호대



616 정진아
서울아산병원

미주 및 해외지부 후원금 내역

2021년 10월 29일 - 2022년 5월 31일

후원교회

성서장로교회(\$1,200) 열린문교회(\$1,400)
남가주기쁨의교회(\$1,400)
세인트루이스한인장로교회(\$2,560)

선교후원금

강정옥(\$2,800) Ruth Frendl(\$1,000)
조순옥(\$1,000) 최진희(\$500) 이계령(\$1,000)
호주지부(\$1,000) 이병덕(\$1,000)
Debbie Youn(\$250) Shepherd 간호대동문(\$200)
최영숙(\$100) Helen Youn(\$100) Stella Park(\$300)
배옥례(\$500) 나민주(\$200) 홍선례(\$100)
오수희(\$100) Young S. Kim(\$100)

북한선교 진동근(\$100)

평양과기대간호대학 이갑순(\$8,500)

비전회비 신지은(\$2,000)

평생회비

김성희(\$1,000) Ruth Kwon(\$1,000) 김혜련(\$1,000)
이강림(\$240) 석소정(\$1,000)

운영지원

Terry Choi(\$4,550) 한진범(\$4,900) 김명자(\$2,400)

장학금 박혜숙(\$10,000)

이사회비

강정옥(\$700) 김명자(\$700) 유정숙(\$300)
장사라(\$200) 신지은(\$900) 이영현(\$700)
이명자(\$700) 박정우(\$1,000) 박혜숙(\$700)
Stella Park(\$1,200) Angela Suh(\$800)
김연수(\$1,200) Jennifer Kim(\$600) 최윤경(\$600)

지정후원금

기도회 및 이사회 식비 신지은(\$200)
세계기독교간호재단달력(2022) 박혜숙(\$350)
차드 진료소 후원 김경자(\$300) 황문순(\$50)
유정숙(\$1,000) 박호순(\$50)

차드 성탄 축하 행사 후원 Angela Suh(\$1,000)
김기찬(\$300) 손종숙(\$100) 박호순(\$250)
임현진 선교사 후원 김선용(\$10,000)
Alice Lee(\$5,000) 박호순(\$1,800) 이봉수(\$500)
복음의빛우림교회(\$500)

북방사역(DCM) 후원 Angela Suh(\$500)
박혜숙(\$1,000)

마리아권 장학금 권오정(\$3,000)
서은성 선교사 자녀 후원 박혜숙(\$600)
과테말라 갈릴리 공동체 현지 목사 결혼 축하
박혜숙(\$200)

최관신 선교사 후원(장학금)
김명자(\$1,000) 최선(\$200)

컨테이너 운송료 Christine Suh(\$630)
성진숙 선교사 후원 Jay McQueen(\$500)

Christine Suh(\$800) Alice Lee(\$5,000)
Terry Choi(\$350) 손명주(\$350) 이경식(\$500)
생수교회(\$39,830) Orlando중앙침례교회(\$2,000)

방영숙 선교사 후원 윤경애(\$200) 김현애(\$1,200)
Grace Chung(\$100) Susie Y. Choi(\$100)

Shung Hei Park(\$100) J eanne Park(\$100)
Woo K. Lee(\$100) 박혜숙(\$1,000)
Janet Beack(\$300)

징검다리 모임 후원 강정옥(\$3,500) Ezra Kim(\$400)
손명주(\$125) Jennifer Kim(\$50) Angela Suh(\$2,000)

David Ross 목사 후원 유미영(\$200)

한국지부 후원금 내역

2021년 11월 1일 - 2022년 4월 30일

단위(원)

북한간호사업 재건기금(NKNRF)

고진숙(6만) 박인자(6만) 김소연(12만)
엄봉순(12만)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권지혜(18만) 김경숙(6만) 세대로교회(60만)
박은정(12만) 박소원(50만) 유숙자(40만)
이인희(6만) 이갑순(200만) 이영미(6만)
전인숙(6만)

육합회비

김일란(12만) 신현숙(24만)

비전회비

김옥인(60만) 정정자(12만)

평생회비

강명희(10만) 강옥남(60만) 김영아(12만)
김종경(60만) 김수옥(20만) 김정란(40만)
민병숙(60만) 박수경(40만) 박희옥(100만)
정진아(100만) 한선규(6만)

월 회비

김선희(12만) 김양희(18만) 오상준(1.2만)
이보영(12만)

선교/사업 후원

강명미(8만) 권인각(6만) 김경순(12만)
김귀자(6만) 김대희(6만) 김수희(6만)
김신혜(6만) 김양남(6만) 김영희(6만)
김진자(12만) 김현주(6만) 김희정(4만)
민자경(6만) 박금실(8만) 반신자(6만)

서강유(5만) 서정운(5만) 서지연(10만)
신경훈(5만) 양영란(30만) 안춘지(6만)
오경화(12만) 오은경(6만) 오유미(6만)
우진경(12만) 이두임(5만) 이정옥(18만)
이정희(39만) 장말란(21만) 전은경(18만)
조은희(30만) 최동희(6만) 황국희(6만)
황옥남(10만) 대한기독교간호협회(12만)

차드 제4진료소 후원

김현주(50만) 겨자씨모임(20만) 동광분(60만)
신현숙(50만) 유숙자(100만) 전지은(50만)
무 명(20만) 무 명(5만)

지정후원금

신기조 선교사 전은경(30만)
이영현 본부재무위원장 서울 늘푸른침례교회(200만)
이 삭 목사 최정숙(50만)
캄보디아 장학금 양혜리/이우일(30만)
간호대학생 장학금 박형란(20만)
성영희(20만)
조미경(20만)

임원 회비

성영희(10만) 소향숙(20만) 유숙자(40만)
이은숙(40만) 장말란(40만) 전은경(40만)
최정숙(40만) 황옥남(20만)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 지부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 Korea

TEL 02-764-1227 FAX. 02-764-1252

wcnfkorea@hanmail.net

(우)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센쥬리 오피스텔 910호

회원가입신청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집 전화	출신학교/학위	
	휴대폰	직장명	
	이메일	출석 교회	
	주소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이 필요 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구분	☐ 일반 회원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CMS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기타 월 () 만원	
	☐ 평생 회원(회비: 일백만원) ☐ 일시불 분납 () 회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비전 회원(회비: 일천만 원) ☐ 일시불 분납 () 회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선교 후원금 (내용: 금액:)

* 선교지 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 후원 (이름 명시) 선교지 학생 장학지원, 북한 간호 재건 , 운영지원, 기타 (내용명시) 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 평생 회원과 비전 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회원 으로서 비전 회원은 명예 이사로 추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추천자 :)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사진파일을 e-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입금계좌안내 】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신한은행 100- 031 - 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국민은행 089501- 04- 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입금은행에 체크해주시고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전화,문자,e-메일)
--	--

CMS 출금 이체 신청서

CMS (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 직접 은행에 가시는 불편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E-mail 또는 우편으로 본 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의 감독하에 출금은행에서 WCNF 계좌로 입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수납기관

수납기관 명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대 표 자	성영희
사업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사업자등록번호	210 - 82 - 78154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금융기관 명		출금계좌번호	
신청인 명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주소		예금주 휴대전화	
신청인 주소		신청인 휴대전화	
월 입금액	원	출금 시작 년 월 일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 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 5년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TNB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 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 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

주)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회원가입신청서(Membership Application)

회원 정보	성명	영문	생년월일	
	Name	한글	출신학교/학위	
	휴대폰		직장명/직위	
	이메일		출석교회/직분	
	주소			

회원 구분	☐ 일반 회원 매월 \$10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원하시는 납부 방법에 X표를 하십시오. \$10 () \$20 () \$30 () \$40 () \$50 () 기타 \$ ()	
	☐ 평생 회원(회비: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비전 회원(회비: \$10,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 선교 후원금 (내용: 금액:)
 * 선교후원금은 선교지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후원(이름 명시), 선교지학생 장학지원, 북한간호사업재건기금, 운영지원 기타(내용명시)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 평양과기대에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후원금입니다.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사진파일을 e-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Check은 WCNF 앞으로 쓰시고 본 신청서와 함께 재단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으로 직접 보내실 때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입금 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바랍니다. -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28528097 -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	---

- 비전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10,000 이상 납부한 회원이며, 본 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합니다.
- 평생회원은 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찬동하며,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코자 하는 회원으로서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입니다.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시는 분이시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날짜:

WCNF 본부 및 각 지부

각 지부는 지역별 지회나 분야별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WCNF 재단

이사장	이송희
이사	최명희

국제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총회장	안젤라 서
제1부회장	마리아 권
제2부회장	조인숙
사무총장	김명자
감사	이일순
감사	배옥례
상임이사	유정숙, 강정옥, 김연수, 박혜숙, 신지은, 이영현, 장사라, 스텔라 박, 제니퍼 김, 에즈라 김

USA 지부

Alabama	채정자
Boston	조종희
CA, Central	권마리아
CA, North	김복상
CA, San Jose	이일순
Chigaco	이복선
Florida	홍찬길
Georgia	안옥자
Hawaii	서지자
Illinois	이(최)순자
Indiana	정귀남
Maryland	양(권)윤자
Michigan	홍(남)문숙
Missouri	이(문)광자
North Carolina	김연수

USA 지부

New York	주명숙
Ohio	이명숙
Rhode Island	이(김)영옥
San Francisco	김혜련
Texas, Dallas	최영숙
Texas, Austin	김은자
Texas, Houston	조상수
Uni. Virginia	강정옥
Washington	김지니

호주 지부

wcnfaustralia@gmail.com

회장	최부옥
부회장	김현남
감사	천옥영
감사	류영숙

캐나다 지부

회장	곽나미
Toronto	송신자
Vancouver	최영자

독일 지부

회장	김연숙
----	-----

뉴질랜드 지부

회장	조영옥
----	-----

한국 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Tel: (02)764-1227
Fax: (02)764-1252
wcnfkorea@hanmail.net

고문

이족자, 이은옥, 백승남, 이정희
감사 강명미, 강채원

회장 성영희
부회장 (PUST간호대설립위원장)

유숙자

부회장(재정위원장) 이은숙

부회장(선교위원장) 최정숙

부회장 황옥남

부회장(NKNR위원장, 회무)

김정희

이 사(교육위원장) 이병숙

이 사(홍보섭외위원장) 전은경

이 사(PUST간호대설립부위원장)

소향숙

이 사(서기) 장말란

이 사(행정) 정미아

서울지회장 강윤숙

경기지회장 오진희

인천지회장 김지윤

강원지회장 서임선

충남지회장 강현숙

대전지회장 김현주

대구지회장 박희옥

전남지회장 오향순

전북지회장 김현옥

부산지회장 정정자

보건진료원회장 한명자

보건교사회장 이석희

제12차 WCNF 정기총회

일정: 2023년 1월 27일 (금) - 29일 (일)

장소: 캄보디아 프놈펜

주제: 선교, 하나님의 기쁨 (사 62: 4)

참가신청 방법

[미국] wcnfusa@gmail.com

[한국] wcnfkorea@hanmail.net

[호주] wcnfaustralia@gmail.com

신청기간

1차 신청: 2022년 10월 30일까지 - 참가비 중 10% 면제

2차 신청: 2022년 12월 31일



제 12 차 WCNF 총회 참가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Cell	
소속지부	미국(), 한국(), 호주()		e-mail	
문의처	미국 wcnfusa@gmail.com 한국 wcnfkorea@hanmail.net 호주 wcnfaustralia@gmail.com			



Angeles College

Which program would be best for me?

B.S. Nursing

3 –Year (12 Quarters)

**For individuals who would like to be
a Registered Nurse(RN) & earn a Bachelors Degree.**

RN to BSN

1 & 1/2Year (6 Quarters)

**For individuals who are a Registered Nurse(RN)
and would like to earn a Bachelors Degree.**

Vocational Nursing

52 Weeks (13 Months)

**For individuals who would like to be
a Licensed Vocational Nurse(LVN).**

Financial Aid available (FAFSA School Code 041604) for those who qualify.

www.angelescollege.edu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이 설립한 선교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 및 비전센터



캄보디아 캄뎡뎡 누가건강센터
(제1 보건진료소)



북한 광산촌 진료소
(제2 보건진료소)



캄보디아 몬노롬 진료소
(제3 보건진료소)



차드 제4 보건진료소(수리예정)



북한 예배당과 진료소(북한의 문이 열리는날)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통권 제 55호 / 2022년 6월 발행 / 발행인 : 안젤라 서 / 편집인 : 스티븐 박

<http://www.wcnf.org>

E-mail: wcnfusa@gmail.com / wcnfkorea@hanmail.net

미주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324-8620 안젤라 서 총회장 CP. 949-933-1287(국가번호 1)

한국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우)06653
Tel. (02)764-1227, Fax. (02)764-1252 성영희 회장 CP. 010-9933-2901(국가번호 82)

호주지부

e-mail: wcnfaustralia@gmail.com
Tel. 411-879-778(국가번호 61)